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여름을 물들이는 '봉선화'



응산가족공원 텃밭에 붉은 봉선화가 피었어요.
붉은 봉선화를 보니 한여름 손톱에 물들이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옛날부터 봉선화는 집집마다 심어서 가꾸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 같이 떠나볼까요?!

'봉선화' 아! 안녕



꽃 모양새가 봉황새를 닮았다고 해서 '봉선화'라고 불러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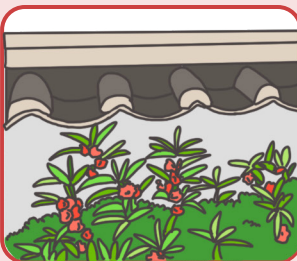
잎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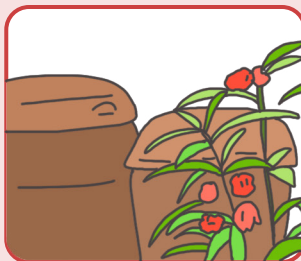
씨앗

'봉선화'를 사랑한 이유~!

'봉선화'의 붉은색이 나쁜 병기운과 해로운 벌레 및 악귀를 막아준다고 믿어 집안 곳곳에 '봉선화'를 심고 가꾸었어요.



담장 밑에 심어 집안에
침범하는 나쁜 기운 차단



장독대 근처에 심어서
뱀이나 벌레들의 접근 차단



손톱에 붉은 물을
들여 악귀를 쫓음



참외와 수박밭 주변에 심어
나쁜 병충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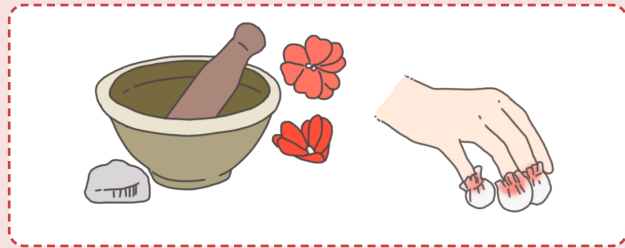
손톱에 '봉선화' 물들이기~!

봉선화를 들이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 풍습!

〈동국세시기〉 기록에서는 "봉선화로 어른, 아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물을 들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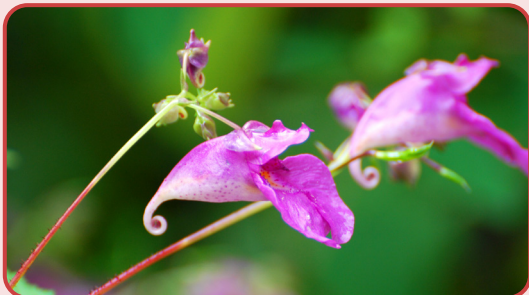
-  봉숭아 꽃, 이파리
-  명반(백반) 조금
-  실과 비닐
-  돌판과 돌 또는 절구와 절구공이



꽃과 잎을 따서 명반을 한꼬집 정도 넣고 곱게 뺨아 손톱에 적당량을 올려 놓은 후 비닐로 감싸 실로 묶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손톱에 '봉선화' 물이 곱게 든답니다~

'봉선화'의 붉은 색소는 꽃보다 잎사귀에 많이 있어서 늦여름까지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어요.
푸른 잎사귀에서 붉은 빛이 나온다니 참 신기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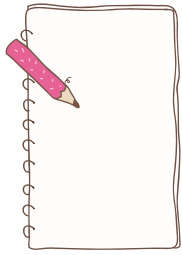
'봉선화' 친척 식물들~!



물봉선



노랑물봉선



왕산기념관을 방문하신다면, '왕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들기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
도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